

“연간 250건 넘는 주취·폭력 시달려… 서울시 현실 방치”

서울교통공사노조 기자회견

노조, 신당역 사고 피해자 추모 재발방지·안전대책 수립 촉구 시 “사법권 부여, 부처 협의 필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6일이다. 왜가는데도 서울시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노조)은 20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직장 내 성폭력에 시작해 스토킹 등 지속적인 가해가 이뤄진 젠더폭력 사건”이라면서 “매년 210여명의 역무원이 폭행·폭언에 시달려 왔는데도 현실을 방치한 서울교통공사와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사 직원들은 연간 250건이 넘는 주취·일반 폭력에 시달려 트라우



20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신당역 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2인1조 근무는 커녕 대부분의 역에서 한 사람이 출동하면 나머지는 무방비로 사고에 노출되는 게 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조 측이 제시한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인력 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265개 역(3360명 근무) 중 73개역(715명)이 2인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2인역이란 역무원 두 명이 근무하는 역사를 의미한다. 2인 근무반으로 운영되면 한 역무원은 민원 등의 접

수를 위해 역사를 지켜야 하므로 1인 순찰이 불가피하게 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순찰은 예기치 않은 위협과 안전을 고려해 2인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2인 근무반의 인력 운영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구조”라며 “순찰시 역무원의 2인1조 근무가 불가능한 것이 서울시의 예산과 인력 정책 때문인지 공사의 인력 운용에 기인한 것인지, 이와 함께 서울교통

공사가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2인1조 근무 의무화’를 제시했다가 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곧바로 해당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현행 지

하철 근무자 매뉴얼에 역내 순찰의 경우 2인1조 근무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사실상 1인 근무로 운영돼 이번 같은 위급 상황에서 대처가 어려웠다”고 썼다가 ‘2인1조 근무 시스템 매뉴얼화’ 관련 부분을 도려낸 후 게시글을 다시 업로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가 1조원대다. 지금은 역무원이 밤에 혼자 순찰하는데 2인1조로 근무하게 되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해 어렵다”고 말했다.

손근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 이후 남자 역무원들도 순찰 도는 게 공포스럽다고 이야기한다”며 “평소에 근무하면서 돌아다니던 곳들이 그렇게 무서운 장소인지 몰랐다고 한다. 트라우마 겪는 사람들이 늘어서 집단 심리상담이라도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대책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그 문제는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본격 추진

양재천길·장충단길 등 5곳 상권 선정 각 지역 3년간 최대 30억 예산 투입

서울시는 잠재력 있는 골목을 서울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울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양재천길(서초구) ▲합마르뜨(마포구) ▲장충단길(중구) ▲선유로(영등포구) ▲오류버들(구로구) 등 총 5곳의 상권을 선정하고, 각 지역에 3년간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서초구 양재천길에 재즈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고품격 상권을 조성한다. 합정역 7번 출구 일대에는 독립서점, 갤러리, 이색 맛집 등 창작자와 소비자가 모이고 소통하는 차별화된 상권을 구축한다. 중구 장충단길에는 서울의 남산과 76년 전통의 ‘태극당’ 등 다양한 지역 자산을 토대로 한 상권을, 선유도에는 공방과 펫(Pet)프리존, 생태교실을 마련해 반려동물 친화적인 상권을, 구로구 오류골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상권별 브랜드 컨셉트를 반영한 ‘커뮤니티 공간’을 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이곳에서 원데이 클래스,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다. 시는 커

뮤니티 공간에 상인들의 제품과 식음료를 배치해 시식 경험이 판매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1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노후화된 가게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낙후된 골목이 아닌 소비자들이 찾고 싶은 상권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임근래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은 “골목의 로컬 브랜드를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떤 것”이라며 “선정된 상권이 지속력과 자생력을 갖춘 서울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산림 휴 복합공간’ 조성사업 용역 착수

사업 대상지 선정 타당성 검토 등 추진

경기도는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양, 체험, 숙박 등이 연계된 산림휴양 시설 복합공간인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의 조성을 위한 밑그림 작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등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산림 휴(休) 복합공간’은 산림자원을 활용,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기존의 시설과 연계해 도민들에게 자연 속 학습·체험·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자 경기도가 구상하는 새로운 개념의 산림휴양공간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산림 휴(休) 복합공간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용역은 오는 2023년 10월 무렵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착수보고회 이후 2~3회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열어 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오는 2024년부터 시설 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2025년에 ‘산림 휴(休)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23~24일 ‘정동의 르네상스’ 행사 개최

서울시는 이달 23~24일 ‘정동의 르네상스’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동야행과 덕수궁 돌담길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야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정동야행은 정동 지역을 중심으로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야간 행사다.

덕수궁 돌담길의 궁중정재 상설무대에서는 밴드 야시시의 ‘밤의 노래’, 광



정동야행 행사 모습. /서울시

개토예술단의 ‘무브먼트 코리아’ 공연이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서울시는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관 교체가 필요한 잔여 가구는 6만9000가구다. 시는 잔여 가구 전량 교체를 목표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6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21일 (수)

음력 : 8월 26일

수도권 날씨

14~2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6:19 | 해짐 / 18:31

연천 10/25, 동두천 11/24, 가평 10/23, 양평 10/25, 용인 14/24, 평택 12/24, 수원 14/24, 인천 14/23, 파주 12/23, 서울 14/25, 백령도 15/2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日총리,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 /사진 뉴시스
▲ 美 7함대 사령관 “중국 대만 봉쇄 감행시 국제사회 개입할 것”



▲ 뉴욕 ‘팬데믹’으로 재정적자 규모 100억 달러… 재정위기 직면
▲ 우크라이나에 1800조원 쓸머은 중동… CNN “마지막 오일붐 가능성” /사진 뉴시스

▲ ‘교류 재개 모색’ 북한, 러 외무차관과 협력 강화안 논의
▲ 세계 해운업계, 항공기 사들인다…물류난에 항공운송으로 활로